



전 동 용
(대한양돈협회 회장)

월간양돈 창간

양돈산업의 길잡이인 「월간양돈」지가 지난 '79년 7월 1일 첫 울음을 터트린 이후 이번 호로서 어언 창간 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월간양돈」지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국의 양돈인을 비롯하여 학계, 연구기관, 관련단체, 업계의 관계자와 바쁘신 중에도 옥고를 보내주신 집필진 여러분, 그리고 본지의 발행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광고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월간양돈」지는 그간 온갖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양돈인의 대변자로서, 또한 양돈인의 진정한 반려자가 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월간양돈」지는 우리나라 근대양돈산업의 초창기에 태어나 양돈인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양돈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관계당국에 전달하면서 양돈산업이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월간양돈」지는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성장과 함께 양돈인들과 동고동락을 함께 해온 유일한 양돈전문 잡지로서 양돈업계와 양돈인들에게 끼친 영향은 실로 막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만족할 수 없으며, 창간 9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월간양돈」이 맡은 시대적 소명을 되새기고 새로운 자세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제, 양돈업을 포함해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일대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해외로부터의 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은 작년 7월 1일에 단행된 돼지고기 통조림 등의 수입자유화로 현재화 되었고, 전국 각 지역 농민들의 아우성과 항의시위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입재개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54년만에 미국을 강타한 큰 가뭄은 국제 곡물가격을 연일 급등케 하고 있고, 국내 양돈업계에는 하반기부터 생산과잉으로 인한 구조적인 양돈불황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진행중인 개방과 자율의 시대적 흐름은 우리로 하여금 정부에 의지해 안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첨단과학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세계는 지금 하나의 경제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분야든지 국제경쟁력이 약하면 국제사회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살아남더라도 상

9주년을 맞이하여

대국과의 거래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수입개방압력으로부터 우리의 양돈산업을 보호하고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오늘의 상황을 직시하고 국제경쟁력의 강화로 상대적 우위에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지금 양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외국에 비해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여건을 타하거나 남에게 의지하려 하기에는 국제사회가 너무 냉혹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축산물의 수입자유화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종돈을 개량하고 경영을 합리화 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축산원자재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돈육요리개발과 육가공산업의 발전으로 소비촉진을 기하는 한편,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통해 양돈산업의 안정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담보하는 자조금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양돈인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우리의 양돈산업은 수입자유화를 두려워만 하는 허약한 산업이 아니라, 오히려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산업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모든 산업이 고도화·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이행되어 가는 것이 현대사회의 흐름이므로, 양돈인 각자는 양돈산업의 주인이자 주체자임을 명심하고 생산자 단체인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 양돈업계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돈산업에 필요한 정책자료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정책입안 과정에 제공하여 채택·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월간양돈』지는 이와같이 양돈산업이 처한 시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양돈인과 함께 하는 동반자, 양돈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후원자, 양돈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을 세계속의 양돈산업으로 육성하고 2000년대 양돈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